

觀光産業이 地域開發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江陵·東草地域을 中心으로—*

曹周鉉

建國大 不動産學科

黃明燦

建國大 行政學科

權春植

關東大 經濟學科

1. 序論

鑛業등 재래산업이 주를 이루며, 도시화 및 공업화가 뒤진 江原道 지역은 開發 疎外로 인한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강릉·속초를 중심으로 한 嶺東地域은 풍부한 천연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발을 지역발전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한 채,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잠재력이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산업이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觀光産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 관광산업과 지역개발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낙후지역에서 관광산업이 지니는 지역경제 및 고용의 파급효과에 관한 논리적 틀을 형성함으로써 지역 선도산업으로서의 관광산업이 지니는 잠재력

과 한계를 확인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강릉·속초 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추이 속에서 어떻게 실증적으로 적용되고 설명될 수 있는가를 지역산업 연관분석의 계량경제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는 한편, 관련업체, 행정실무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면접 및 현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분석을 행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련제도의 보완 및 정비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산업을 가려내어 유치·개발하는 동시에 개발의 이익이 지역에 계속 남아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2. 觀光産業과 地域開發

1) 經濟發展과 觀光産業의 展望

경제발전에 따라 지역격차는 초기에는 확대되지만 후기에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며 (Williamson, 1965), 이러한 과정은 캐나다와 같이 정부가 지역격차에 대한 시정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때 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낸다(黃明燦, 1989). 또한 이러한 격차의 축정은 지역총생산(GRP)에 대한 자료의

*本 研究는 教育部 '92年度 地域開發에 관한 學術研究 助成費의 支援에 의한 것임.

신빙성과 접근성의 결여로 상당히 제한적이며, 그 해석에도 신중을 요한다.

지역격차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지역별로 입지우위에 있는 산업을 기반으로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격차의 해소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성장의 선도산업은 지역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1990년대에는 전자등 첨단산업과 비교역산업인 서비스산업이 낙후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80-1988년의 기간중 여가활동량은 2.8배, 외국인 관광객은 연 11.5%, 자연공원 및 골프·스키장 이용객은 연 18%씩 증가하였으며, 제3차 국토계획의 목표 연도인 2001년에는 1988년에 비해 여가활동량은 2배로 증가함으로써 국민 1인당 연간 14.4회의 여가활동 참가가 예상되어 수요측면에서의 관광산업의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하겠다.

낙후지역은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 결여로 생산시설의 입지 측면에서는 열세에 놓여 있으나,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대, 그리고 자동차의 보급으로 인한 이동성의 증대로 가족단위의 장기체류형 숙박형태의 수요가 증가하여 관광산업의 잠재력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3차 국토계획에서도 강릉·속초지역은 국민여가시대의 관광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종합 관광개발 계획의 수립으로 금강산개발과 연계시켜 국제적인 관광수요에 대처할 예정이어서 이 지역의 관광산업 발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2) 觀光産業의 特性 및 類型

관광산업은 공익적 활동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사업의 복합적인 산업이다(尹大淳, 1992). 또한 관광산업은 관광자(관광주체), 관광대상 및 관광자원(관광객체), 관광기업(관광매체), 그리고 공적 관광산업(정부, 지방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입지 의존

성, 서비스의 중요성, 조직구성의 복잡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金相勳, 1985). 한편, 관광활동은 관광행위의 단계에 따라 준비, 이동, 숙박 그리고 활동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응하는 여행업, 관광교통업, 관광숙박업, 관광시설 이용업 등이 관광산업을 이루고 있다(Burkart & Medlick, 1987). 실제로 법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용역업, 그리고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고 있다(李亢求, 1987). 이와같이 관광산업은 다양하게 구분되나, 본연구에서는 이상의 다양한 관광산업을 연구목적과 취득자료의 구분가능성에 따라 식음료, 도소매, 음식숙박업, 운수보관업, 공공행정산업, 그리고 기타서비스업으로 한정하여 분석코자 한다.

3) 觀光産業의 地域開發 效果

(1) 巨視的 分析: 經濟的/非經濟的 效果

관광산업의 경제적 측면의 지역개발 효과를 측정하는 분석도구로서는 乘數分析(multiplier analysis),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지역산업 연관분석(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등이 있으며 비용편익분석의 경우는 잠재적 시장가격(shadow price) 및 소비자잉여의 측정에 어려움이 따르며, 지역산업연관분석은 지역단위의 생산연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는 일과 정확한 관광산업부문을 추려내는 작업이 어렵다. 한편 觀光乘數의 경우는 미시적 자료에 의해서도 쉽게 도출될 수 있으나 지역전체의 장기적 파급효과의 측정이 다소 미흡하다.

관광산업의 지역에 대한 영향중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는 소득창출, 고용확대, 지역산업 구조의 다변화, 지방정부 세입의 증대 등이며, 부정적 효과는 인플레이 유발, 지가상승, 수입성향의 증가 및 경제 활동의 외부 의존도 증가로 인한 대외중속의 가속화, 계절성, 경기변동의 취약성으로 인한 지역경

제구조의 불안정 등이다. 관광산업의 사회문화적 불이익은 자연환경의 파괴, 주민의 사회가치 파괴와 지역문화의 붕괴 등을 들 수 있다(金思憲, 1985).

(2) 微視的 分析: 所得/雇傭의 創出 및 漏出

미국 국립공원 관광객 지출의 경우 (Clawson, 1966) 식료품비는 총지출의 1/3, 숙박비가 1/4, 교통비가 1/5, 기타가 약 1/5 정도로 나타났고, 지역의 누출성향이 가장 큰 품목은 자동차 관련 지출과 식료품 지출이며, 반면에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품목은 숙박비(45%)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동차 여행이 보편화될 우리의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일본의 산악관광지인 白馬村의 관광소비경제 효과를 분석한 石井(1981)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과는 달리 운수업 50.1%, 음식점 42.2%, 숙박업 37.8%의 부가가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관광산업은 지역에 따라 상이한 개발효과를 가지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예로 볼 때, 숙박업(그중에서도 민박)과 음식 서비스업이 지역내 소득 승수가 높으며, 숙박업중에서도 업주가 제공하는 음식을 구매하는 숙박형태가 지역소득 승수효과가 높다고 하겠다.

고용효과의 측면에서는 식음료와 숙박업이 \$1000당 247명으로 나타났으며(交通部, 1982), 관광숙박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韓國觀光協會, 1982)에 의하면 호텔의 규모가 클수록 실당 고용효과는 높아지고 있어, 관광산업의 다양화가 지역고용효과 극대화의 요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관광산업은 1차적인 지역소득의 창출효과는 높으나 이러한 산업의 개발이 외부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지역소비의 다양화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그 누출효과는 큰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3. 地域現況 및 觀光産業의 波及效果 分析

1) 地域現況 및 問題點

인구 및 산업생산의 측면에서 강원도와 영동권의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위치는 매우 낙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표-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 인구는 1970년에서 1989년의 19년간 약 17만명이 감소했으며, 특히 1986년 이후 5년간 약 5만명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초래하였다.

한편 지역경제의 직접적 평가기준이 되는 1인당 생산액 비교에서도 다음 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강원도와 영동권은 모두 전국평균에 밀리고 있으며, 특히 영동권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동의 중심도시라 할 수 있는 강릉과 영서의 중심도시인 춘천을 비교하여 보면 1인당 생산액에 있어 춘천시는 1980-1986년간 9.1%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강릉은 5.7% 증가에 그치고 있다(權春植, 1988). 이와같은 결과는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졌던 1970년대까지는 영동지역이 강원도내에서 경제적 비중이 컸던 반면, 산업화시대의 공업발전이 영동지역에서는 부진했던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1. 강원도 및 영동·태백의 인구추이

단위: 천명

연 도	1970	1980	1986	1989	인구증가율(%) ('80 - '89)
강 원 도	1,867	1,792	1,751	1,702	-0.5
영 동 권	—	617	605	616	-0.1
영동·태백	—	1,029	997	955	-7.2

자료: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각연도; 강원도, 「강원통계연보」, 각연도.

표 2. 1인당 생산액 비교
단위: US(\$)

연 도	1980	1986
전 국	1,589(100.0)	2,296(100.0)
강 원 도	1,384 (87.0)	2,205 (96.0)
영동·대백	1,407 (88.5)	2,268 (98.7)
영 동 권	1,475 (92.8)	1,892 (82.4)

자료: 權春植, 1988, "동해안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영동연구」, pp. 5-6.

이러한 개발의 낙후성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는 콘도, 호텔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이 영동지역에서 활성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다만 이러한 산업의 활성화가 지역산업의 부흥으로 이어지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설악산 국립공원내 설악동 개발(1976 - '78)의 경우 구단지 일때는 90% 이상이 지역주민의 상권이었던 것이 집단화된 개발 이후는 90% 이상이 외지인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江原日報, 1982. 7. 24). 설악권 관광 토산품산업연구(金炳文, 1981)에서도 70%(서울 51.7% 포함)를 道外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누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속초에서의 입하량은 27.1%에 불과하여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주된 이유는 이러한 시설들이 집단화되면서 지역산업과의 공간적 연계가 부족하고, 도시내부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地域産業 및 地域經濟構造 現況

다음 표 3은 1990년 현재 영동 중남부권(강릉권)과 속초권의 생산액 및 고용기준의 산업 및 경제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1차산업의 경우 생산액을 기준으로 각각 5.5%

와 15.8%를 보이고 있어 전국 평균 9.1%에 비해서는 강릉권이 낮고 속초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자수를 기준으로 하면 두지역이 모두 20%를 넘고 있어서 노동집약성을 보이고 있다. 2차산업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강릉권이 54.8%, 속초권이 16.9%를 보이고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고 이는 전국평균 29.7%와는 크게 괴리되어 있다. 이는 강릉권에서 시멘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이 지역 총생산의 28.9%를 차지하는등 광업부문이 주종을 이룬데 기인하는 것이며, 속초권의 경우는 2차산업중 수산가공품이 지역 총생산의 10.6%를 차지하여 지역특성산업임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고용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2차산업의 종사자는 각각 17.5%와 8.1%에 불과하여 자본의 규모에 비해 고용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기업의 과실은 투입된 자본의 몫으로 대부분 유출되어 지역에 미치는 고용 및 소득효과는 생산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3차산업의 비중은 생산액을 기준으로 각각 40.0%와 67.3%를 나타내며, 고용자수도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관광산업의 주된 업종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생산액을 기준으로 1.1%와 5.4%에 불과하여 업체의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소매업의 경우도 고용규모에 비해 생산액이 저조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강릉권에 비해 속초권의 경우는 관광과 관련한 도소매, 음식숙박업, 그리고 기타서비스업의 고용자수가 전체의 47%에 달하여 이 지역에서의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3) 觀光産業의 經濟的 波及效果 分析

(1) 分析方法

지역내의 어느 특정산업이 지역 경제활동에 미치는 기여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지역산업연관모형(regional input output

표 3. 영동중남부권(강릉권) 및 속초권의 산업별 생산 및 고용(1990년말 기준)

단위: %

산 업		전 국	영동중남부권(강릉권)		속초권	
			생산액	고용자수	생산액	고용자수
1차 산업	농산물		4.4	17.7	3.2	7.5
	수산물		1.1	2.8	12.6	14.1
	합 계	9.1	5.5	20.5	15.8	21.6
2차 산업	석탄		9.7	5.9	—	—
	기타 광물		9.0	5.5	—	—
	수산가공품		1.8	1.1	10.6	4.5
	식음료		1.5	0.1	—	—
	섬유 의복		0.4	0.7	0.5	0.8
	제재 가구		0.5	0.3	0.5	0.4
	인쇄 출판		0.1	0.1	0.2	0.2
	화학석탄제품		1.2	0.2	—	—
	비금속광물제품		28.9	2.3	3.4	1.0
	일반기계장비		1.8	0.6	1.5	1.0
	기타 제조		0.1	0.2	0.1	0.2
합 계	29.7	54.8	17.5	16.9	8.1	
3차 산업	전력 수도		4.6	0.7	9.4	0.8
	건설 토목		1.8	2.3	3.1	2.2
	도소매		6.8	22.7	12.2	18.2
	음식 숙박		1.1	8.2	5.4	18.8
	운수 보관		6.5	3.8	12.1	5.4
	금융부동산		5.8	3.6	8.4	3.6
	공공 행정		6.0	2.9	8.0	5.8
	교육 연구		4.1	5.8	4.1	4.4
	기타서비스		3.0	12.4	4.7	11.2
합 계	61.2	40.0	62.4	67.3	70.4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국은 생산액기준임. 2) 강릉권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삼척군, 명주군을 포함하며, 속초권은 속초시만을 포함함.

자 료: 한국은행, 1991, 「연차보고서」; 강원도, 「강원통계연보」; 한국은행 강릉지점, 1990, 「영동·태백권의 사회경제 지표」.

model)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각 산업의 생산량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에 있어서의 생산과 고용의 변화를 추정하고자 한다. 지역산업연관표의 작성에 있어서는 연구의 시간과 비용의 제약상 1990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

관표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비실사방법(non-survey method)을 채택하였다. 실증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편의상 크게 두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동해안 관광지역중 영동 중남부 경제권(강릉권)이고 둘째는 속초시 경제권이다. 영동 중남부 경제권은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등 4

개시와 삼척군, 명주군의 2개군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영동중남부권과 속초권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영동중남부권에 시멘트 및 석탄산업 등 광공업이 주산업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속초권은 설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지역이어서 이 두 지역을 비교함으로써 동해안 관광지역의 특화전략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산업의 분류에서는 관광산업 내지 관광관련 산업을 별도로 분류하여 작성하지는 않았다. 지역의 관광관련 산업의 범위 자체가 일률적으로 정의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생산과 판매에 있어 관광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을 정하고, 이들 산업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관광과 지역경제의 유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에는 첫째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이를 유지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서비스산업을 우선 포함하였다. 둘째로 동해권 관광의 지역적 특성으로 보아 관광과 깊이 관련되는 산업으로 도소매산업, 음식·숙박, 운수 및 보관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한정하였다.

(2) 地域産業聯關模型

① 模型의 概觀

지역산업연관표는 다음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기간(1년)에 걸쳐 지역 경제 체제내에서 재화나 용역의 산업부문간 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서 생산, 소득, 지출 등 지역경제 순환활동의 연관관계를 행렬로 나타낸 경제표이다. 여기서 끝의 행합계와 열합계는 각각 지역경제의 총생산과 총투입이 된다.

② 投入係數行列

산업연관 분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투입계수이다. 왜냐하면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모든 승수 또는 계수들이 투입계수를 중심으로 도출되기 때문이다.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자재 등 중간투입액을 총 투입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것은 각 산업부문의 생산물 1단위의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단위를 나타낸 것으로서 다음 식으로 구해질 수 있다.

$$a_{ij} = X_{ij} / X_j \quad (i, j=1, \dots, n)$$

X_j : j산업부문의 총 투입액

X_{ij} : j산업 부문의 생산에 투입된 i부문의 중간 투입액

③ 生産誘發係數行列

어떤 산업의 최종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각종 승수 또는 계수는 생산유발계수 행렬에 기초하고 있다. 이 생산유발계수 행렬은 앞의 투입계수 행렬로부터 다음식으로 얻어진다.

표 4. 지역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산 출			내생부문(중간부문)				외생부문	총 생 산
			산업1	산업2	...	산업n	최종수요 및 반출	
투 입	중 간 투 입	산업1	X_{11}	X_{12}	...	X_{1n}	D_1	X_1
		산업2	X_{21}	X_{22}	...	X_{2n}	D_2	X_2
		...	\vdots	\vdots	...	\vdots	\vdots	\vdots
		산업n	X_{n1}	X_{n2}	...	X_{nn}	D_n	X_n
외 생 부 문	부가가치반입		V_1	V_2	...	V_n	D_0	V
			X_{m1}	X_{m2}	...	X_{mn}	D_m	X_m
총 투입			X_1	X_2	...	X_n	$\Sigma D_i + D_0 + D_m$	

즉,

$$AX + D = X \text{ 에서 행렬 } X \text{를 구하면,}$$

$$X = (I - A)^{-1} D$$

여기서 X: 산업의 생산량 벡터 ($n \times 1$)

A: 투입계수행렬 ($n \times n$)

D: 산업의 최종수요벡터 ($n \times 1$)

I: 단위행렬 ($n \times n$)을 의미한다.

여기서 $(I - A)^{-1}$ 을 생산유발계수 행렬 또는 Leontief 행렬이라 하며, 행렬의 각 요소의 값은 j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간접으로 i부문으로부터 요구되는 산출 총량을 의미한다.

(3) 地域 投入/産出表의 作成

지역산업 연관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제 조사방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 투입/산출의 계수들을 도출하는 데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로 전국적인 투입/산출표의 계수를 지역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지역 투입/산출 계수로 전환하는 방법과, 둘째로 전체적인 지역계수 행렬들을 산출하지 않고 지역 투입/산출계수만을 측정하는 short-cut 방식, 셋째로 기존의 가능한 자료를 이용함과 동시에 일부는 실제자료를 통해서 측정하는 혼합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번째 방식을 이용하였다. 이때 가중치로서는 산업별 생산액을 사용하였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타 지역과의 거래인 반입(imports)의 측정인데, 이는 외생부문의 기초투입이기 때문에 내생 부문간의 기술적 상호의존관계를 나타내는 투입계수 행렬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원래 지역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중간투입물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투입물(경쟁수입)과 지역에서 생산되더라도 지역의 투입요구량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비경쟁 수입)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강릉·속초 지역에 입지한 산업들은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한 산업으로 분류되기에는 생산수준이 미미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외부로부터의 중간재

반입은 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비경쟁수입만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지역투입계수로 전국의 중분류인 65개 부문의 투입계수행렬 (65×65)의 열(column)란에 지역산업 부문의 생산액의 가중치를 두었다. 물론 반입되는 산업부문의 가중치는 '0'이 된다. 지역 가중치가 '0'이 되는 부문이 25개에 달하므로 투입계수행렬은 65×40 의 직방행렬이 된다. 다음으로 행(row)의 65개 부문중 25개 부문을 반입계수로서 내생부문으로부터 외생부문에 귀속시키면 투입계수행렬은 40×40 의 정방행렬이 된다. 다음으로 40×40 의 투입계수행렬은 다시 지역경제 여건에 맞는 수준인 22×22 로 축소 통합하였다. 그러나 축소경제권은 산업이 더욱 단순하여 18×18 로 축소통합하였다.

(4) 波及效果의 實證分析

1) 投入 및 搬入係數

한 지역의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직·간접으로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되며, 그 총산출 규모도 최종수요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최종수요의 크기와 각각의 재화나 서비스의 총산출 수준의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투입계수이다. 즉, 투입계수는 각 부문의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중간재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표 5에서 강릉권에서의 산업부문별 지역내에서 중간재가 조달되는 정도인 중간투입계를 보면, 화학·석탄제품(0.82), 수산가공(0.74), 식음료(0.70), 인쇄·출판(0.56)이 상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농산물(0.11), 교육·연구(0.10) 등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외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반입계수의 경우 섬유·의복(0.60), 기타제조(0.36), 일반기계(0.31), 전력·수도(0.2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연구(0.02), 수산가공(0.04), 기타서비스(0.06) 등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관광관련

산업이 비교적 지역의 특성산업임을 잘 반영하고 있다. 속초권의 산업별 중간투입계수는 강릉권과 유사하나 반입계수는 섬유·의복(0.62), 전력·수도(0.55), 조립금속기계(0.29) 등이 높으며, 금융(0.01), 도소매(0.03), 교육·연구(0.03), 기타서비스(0.06)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生産 및 雇傭誘發效果

위와 같은 투입계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따라 각 산업부문에 파급되는 생산유발효과와 크기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행렬을 이용하여 산업별 생산유발 계수를 도출하여 계산한 생산유발 계수행렬의 열합계를 요약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가장 높은 생산유발계수를 보이는 산업은 강릉권에서 화학·석탄제품(2.16)이며, 속초권에서는 수산가공품(1.99)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강릉권에서는 수산가공품(2.09), 식음료(1.91), 인쇄·출판(1.91) 등이 상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관광관련 산업인 음식·숙박(1.46), 운수·보관(1.43), 공공·행정(1.66), 기타서비스(1.78) 등은 중간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속초권에서는 수산가공(1.99)을 선두로 인쇄출판(1.84), 공공·행정(1.61) 등 관광관련 산업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를 전국의 수준과 비교하면 병원, 약국 등의 기타 서비스업이 강릉권에서 1.78로 전국의 1.70을 약간 상회할 뿐 모든 부문에서 전국 수준에 뒤지고 있다. 이는 결국 이 지역의 생산구조가 낙후되어 있어서 산업간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뜻한다.

이와같이 산업의 생산유발이 일어나게 되면 이를 위한 고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고용의 증대는 주민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즉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

표 5. 산업별 중간투입 및 반입계수

산 업	강 릉 권		속 초 권	
	중간투입계	반입계수	중간투입계	반입계수
농산물	.11	.11	.07	.15
수산물	.23	.18	.22	.19
석탄	.27	.14	—	—
기타 광물	.24	.11	—	—
수산가공품	.74	.03	.71	.07
식음료	.70	.09	—	—
섬유·의복	.16	.60	.16	.62
제재·가구	.40	.10	.39	.40
인쇄·출판	.56	.09	.55	.09
화학·석탄제품	.82	.05	—	—
비금속광물제품	.35	.11	.38	.27
일반기계장비	.39	.31	.38	.29
기타 제조	.30	.36	.25	.06
전력·수도	.14	.20	.07	.55
건설·토목	.42	.19	.40	.20
도소매	.26	.03	.26	.03
음식·숙박	.31	.05	.29	.07
운수·보관	.29	.15	.29	.22
금융·부동산	.31	.11	.31	.01
공공·행정	.41	.11	.41	.11
교육·연구	.10	.02	.10	.03
기타서비스	.28	.06	.27	.06

표 6. 산업별 생산 및 고용유발계수

산 업	생산 유발 계수			고용 유발 계수	
	강릉권	속초권	전국	강릉권	전국
농산물	1.14	1.09	1.49	.23	.27
수산물	1.34	1.31	1.97	.16	.10
석탄	1.40	—	1.95	.06	.13
기타 광물	1.36	—	1.81	.06	.12
수산가공품	2.09	1.99	2.62	.14	.10
식음료	1.91	—	2.51	.17	.16
섬유·의복	1.24	1.21	3.13	.13	.11
제재·가구	1.64	1.57	2.60	.06	.08
인쇄·출판	1.91	1.84	2.78	.16	.08
화학·석탄제품	2.16	—	2.76	.06	.05
비금속광물제품	1.83	1.54	2.45	.04	.08
일반기계장비	1.61	1.57	2.94	.05	.07
기타 제조	1.49	1.36	2.90	.18	.11
전력·수도	1.21	1.11	1.80	.02	.03
건설·토목	1.70	1.59	2.56	.10	.10
도소매	1.11	1.36	1.66	.21	.16
음식·숙박	1.46	1.40	1.77	.43	.35
운수·보관	1.43	1.49	2.06	.06	.08
금융·부동산	1.49	1.45	1.67	.08	.70
공공·행정	1.66	1.61	2.42	.08	.10
교육·연구	1.17	1.15	1.32	.09	.11
기타서비스	1.78	1.38	1.70	.37	.14
합 계	34.13	25.95	46.87	2.96	3.03

이 강릉권의 산업별 고용유발 계수를 보면 음식·숙박(0.43), 기타서비스(0.37), 농업(0.23), 도소매업(0.21) 등 관광관련 산업들에서 고용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쇄·출판, 음식·숙박, 기타서비스 등에서는 전국 수준보다 높아 지역고용 창출의 주산업으로 상호 연계개발이 기대된다.

3) 立地係數에 의한 分析

어느 한 소규모 경제권이 전국 또는 타지역과 비교하여 산업구조상의 특성을 발견하고 특화대상 산업을 발견하는 방법으로서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에 의한 분석이 있다. 이에는 산업별 생산액이나 고용자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고용자수를 사용하여 강릉과 속초의 입지계수를 산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강릉권은 석탄(29.98), 기타광물(29.40) 등 대기업에 의한 광업부문이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중에서는 수산가공업(3.22)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특화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볼 수 있는데 관광관련 산업중에서는 수산가공품(3.22), 음식·숙박(1.17), 운수·보관(1.15), 공공·행정(1.73)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속초권의 경우는 수산물(8.69)과 수산가공품(4.78)을 중심으로 기반산업을 이루고 있으며, 관광관련 산업인 음식·숙박(3.80), 인쇄·출판(2.75), 기타서비스(1.25) 등에서 강릉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4) 觀光關聯産業의 波及效果 및 展望

강릉 속초권은 거의 전지역이 관광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주된

표 7. 산업별 입지계수

산 업	강 룡 권	속 초 권
농산물	0.62	0.58
수산물	1.24	8.69
석탄	29.98	—
기타 광물	29.40	—
수산가공품	3.22	4.78
식음료	0.16	—
섬유·의복	0.05	1.05
제재·가구	0.80	0.80
인쇄·출판	0.27	2.75
화학·석탄제품	0.12	—
비금속광물제품	16.42	0.09
일반기계장비	0.13	0.66
기타 제조	0.05	1.67
전력·수도	2.10	1.61
건설·토목	0.26	1.33
도소매	0.98	1.41
음식·숙박	1.17	3.80
운수·보관	1.15	1.46
금융·부동산	0.82	1.14
공공·행정	1.73	1.05
교육·연구	1.72	0.79
기타서비스	0.53	1.25

주: 고용자수를 기준으로 함.
 즉, $LQ = (E_{ij}/\Sigma E_{ij}) / (E_i/\Sigma E_i)$.
 i: 산업, j: 지역.

산업은 음식·숙박업이다. 음식·숙박업은 입지 계수에 있어서 강릉권이 1.17, 속초권이 3.80이어서 지역 특화산업으로 충분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생산유발계수는 강릉권에서 1.46, 속초권에서 1.40으로 평균수준을 유지하며, 고용유발계수에서는 0.43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높은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이밖에 관광관련 산업인 운수·보관, 공공·행정, 기타서비스 부문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기반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가 노동집약적인 구조를 보이고 영세하여 부가가치 창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산가공품과 인쇄·출판 등에서 높은 수준을 보임으로써 수산가공품의 관광기념품화, 그리고 인쇄·출판을 중심으로 한 관광홍보산업의 육성이 기대된다.

로 한 관광홍보산업의 육성이 기대된다.

4. 觀光開發에 대한 地域住民의 態度分析

1) 設問調查概要

관광산업의 지역소득 및 고용창출 효과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지역개발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강릉시와 속초시내의 관광업체 경영자 및 종사자, 5급이상 공무원, 시도의원, 교수 등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해서 설문지를 각 도시별로 500매 씩을 배포하고 유효표본을 다음 표 8과 같이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1992년 7월 20일 부터 8월 10일의 약 20일간이며, 응답자 자계식으로 기록토록 하였다.

2) 設問調查結果

(1) 觀光開發의 地域開發에의 影響에 대한 認識

다음 표 9에서와 같이 관광개발이 지역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릉의 40.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속초의 경우는 27.8%만이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중립·부정의 견해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관광수입의 지역외 누출에 대해서는 강릉의 56.9%, 속초의 71.4%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관광개발과 고용기회 창출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광산업이 발달한 속초의 경우가 42.2%로 강릉의 38.4% 보다 다소 높으며 소득에 대한 영향 보다도 고용측면이

표 8. 설문조사 대상자의 분포(유효표본기준)

현 직	강릉	속초
관광업체근무·경영	168	168
5급이상 공무원·시도의원·교수	96	81
지역주민	168	168
계	432	417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관광개발의 사회적 측면의 영향을 묻는 설문에서는 다음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종공해유발(강릉 87.7%, 속초 87.3%), 산림훼손심각(강릉 70.5%, 속초 77.5%), 지역물가와 지가의 급등(강릉 68.3%, 속초 78.4%), 지역고유의 미풍양속이 사라짐(강릉 54.%, 속초 50.7%)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광개

발로 교통사정이 악화(강릉 79.6%, 속초 70.3%)되기는 하나, 상하수도, 전화 등 생활환경의 개선(강릉 46.1%, 속초 36.5%)이 있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2) 觀光開發에 대한 地域住民의 態度

다음 표 11에서와 같이 지역 관광개발에의 관심을 묻는 설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강릉 64.6%, 속초 59.8%)으로 나타나고

표 9. 관광개발의 지역개발에의 영향

단위: 명(%)

응답	소득향상		고용기회 창출		관광수입의 지역외누출	
	강릉	속초	강릉	속초	강릉	속초
①	29 (6.7)	51 (12.2)	42 (9.7)	40 (9.6)	23 (5.3)	8 (1.9)
②	89 (20.6)	87 (20.9)	99 (22.9)	84 (20.1)	72 (16.7)	44 (10.6)
③	138 (31.9)	163 (39.1)	125 (28.9)	117 (28.1)	91 (21.1)	67 (16.1)
④	126 (29.2)	103 (24.7)	121 (28.0)	153 (36.7)	146 (33.8)	126 (30.2)
⑤	50 (11.6)	13 (3.1)	45 (10.4)	23 (5.5)	100 (23.1)	172 (41.2)
계	432(100.0)	417(100.0)	432(100.0)	417(100.0)	432(100.0)	417(100.0)

주: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표 10. 관광개발의 지역사회에의 영향

단위: %

응답	각종 공해유발		산림훼손심각		물가/지가급등		미풍양속사라짐		교통사정악화	
	강릉	속초	강릉	속초	강릉	속초	강릉	속초	강릉	속초
부정	3.9	6.7	8.3	10.3	10.8	8.4	23.0	14.9	6.2	15.1
중립	8.3	5.0	22.2	12.2	20.8	13.2	22.7	24.5	13.9	14.6
긍정	87.7	87.3	70.5	77.5	68.3	78.4	54.3	50.7	79.6	70.3

주) 부정: 매우 혹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긍정: 매우 혹은 대체로 그렇다.

표 11.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단위: %

응답	관광개발에관심		주민의사반영		개발참여의사		외지인투자참여	
	강릉	속초	강릉	속초	강릉	속초	강릉	속초
부정	7.0	10.3	41.4	33.6	9.5	12.2	34.7	39.5
중립	25.7	30.0	28.7	36.0	24.8	28.5	25.9	30.5
긍정	64.4	59.8	29.9	30.5	65.8	59.3	39.4	30.0

주) 부정: 매우 혹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 긍정: 매우 혹은 대체로 그렇다.

있으며, 지역관광개발이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 관광개발에의 참여의사에는 긍정적인 견해(강릉 65.8%, 속초 59.1%)가 우세하다. 그러나 지역관광개발에의 외지인의 투자참여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려 대체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向後政策方向

현재 관광산업의 발전저해요인을 묻는 설문에서는 다음 표 12에서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 지역자본의 투자부족 등 자본의 부족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고, 교통사정이 불편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기능의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에서는 관광휴양기능과 교

표 12. 관광산업의 발전저해요인
단위: 명(%)

응답	강릉	속초
지역주민의 보수성	34 (7.9)	35 (8.4)
지역자본 투자부족	72 (16.7)	109 (26.1)
교통사정 불편	101 (23.4)	100 (24.0)
행정절차 복잡	28 (6.5)	27 (6.5)
중앙정부 지원 미흡	142 (32.9)	115 (27.6)
시정부의 불균형 지원	55 (12.7)	31 (7.4)
계	432(100.0)	417(100.0)

표 13.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기능 및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단위: 명(%)

도시 기능의 우선순위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응답	강릉	속초	응답	강릉	속초
관광휴양기능	162 (37.5)	109 (26.1)	첨단 산업단지	168 (38.9)	120 (28.8)
행정기능	66 (15.3)	88 (21.1)	관광단지	193 (44.7)	156 (37.4)
교육문화기능	131 (30.0)	165 (39.6)	공업단지 추가개발	25 (5.8)	25 (6.0)
해양항만기능	12 (2.8)	17 (4.1)	어항개발	12 (2.8)	58 (13.9)
산업기능	43 (10.0)	24 (5.8)	관광농업단지 개발	19 (4.4)	26 (6.2)
유통기능	18 (4.2)	14 (3.4)	해양관광 산업 개발	15 (3.5)	32 (7.7)
계	432(100.0)	417(100.0)	계	432(100.0)	417(100.0)

육·문화 기능이 중심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우선순위에서는 관광단지 및 첨단산업의 입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觀光開發의 改善方向

1) 觀光收入의 漏出防止

강릉·속초 지역의 관광수입은 지역산업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타지역에서의 반입재화 구입 혹은 외지자본에 대한 과실 등으로 상당부분이 누출되고 있고 또한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광수입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내의 산업기반을 튼튼히하는 한편 지역내 자본의 효과적인 동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전략으로서 개발규모의 축소조정을 통한 역내 영세자본의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대규모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는 역내 자본의 합작투자를 장려해야겠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관광산업의 고용우선권을 부여토록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관광원료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관광개발의 지역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중의 하나는 민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사회·문화적 이해증진에 도움을 주며 대규모 투자없이도 기존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실례로

낙산해수욕장 부근의 양양군 전진1리의 경우는 전체 민가의 60%가 민박등록을 하고 있으며, 가구당 민박수입이 연수입의 10.6-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韓大鉉, 1982), 그 잠재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형호텔등 고급 관광시설개발의 경우 대외수입성향이 25%(金思憲, 19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누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박의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되 외지인への 민박임대등을 억제하여 관광수입의 누출을 막고, 고급 숙박시설의 경우 부대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소득 창출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관광기념품 산업의 경우 지역특성을 살린것 보다 대도시에서 생산된 표준화된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고유의 토산품 개발에 금융지원이 있어야겠다. 특히 전형적인 관광 기념품들 보다는 지역의 특산물, 예를 들면, 산채, 수산물, 목공예, 석공예품 등의 가공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이 절실하다.

2) 觀光과 地域基盤産業의 連繫促進

지역주민 소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광개발과 지역내 자급도가 높은 산업과 연계하여 육성정책을 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관광과 어업 및 수산가공업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관광어업의 육성을 통하여 각종 수산물 및 건어물의 기념품화를 도모하고 관광 활동과 관련한 바다낚시, 어촌관광, 바다축제, 수상스키, 「스쿠버 다이빙」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주민과 민간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규모 어촌관광단지의 개발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는 인공낚시터, 해산물 직판장, 보트대여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들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한편, 인쇄출판, 교육문화산업은 지역기반 산업으로서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관광

산업과의 연계화가 필요하다. 즉, 관광홍보산업, 「컨퍼런스」산업 등을 집중육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용한 첨단 연구시설 및 교육기반의 확대와 관련한 관광정보통신산업 등의 육성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3) 連繫觀光「루트」의 開發

동해안 지역의 관광개발은 지역간 연계체계나 관광「루트」의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 3월 현재 설악산에는 한국콘도 48실, 정아콘도 1,534실, 속초에 동방콘도 60실, 하일라 410실, 현대 웨미리 49실, 삼성콘도 147실, 웰컴콘도 102실, 그린텔콘도 75실, 뉴월드 콘도 219실, 설악동해 60실, 진부령에 알프스리조트 604실, 경포대 진안 521실, 효산 634실, 낙산 거평센츄리 374실, 미시령 대명레저 723실 등 총 5,515실로서 우리나라 전체 콘도 객실수의 46%가 이 지역에서 영업중이다. 이러한 개발들은 그동안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가운데 국지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적인 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부적합하게 발전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소득을 높일 수 있는 숙박업종의 계획적 입지와 유치를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

한편, 연계관광「루트」의 개발은 지역간 연계를 돕고 장기체류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재평가되어야겠다. 특히 포항-울진-강릉-속초-금강산을 연계하는 남북연계 「루트」와, 봄·가을의 설악산, 오대산, 소금강, 겨울의 대관령, 진부령, 용평, 그리고 여름의 경포, 강문, 송정, 송지호 등 4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순환관광「루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4) 觀光行政組織의 整備

관광행정은 중앙의 교통부 관광국에서 통합적 정책의 수립·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건설부, 보사부 등 10개의 기타 부처가 사안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체제로 되어

있으며, 부처간 협조체제의 미비로 업무의 능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시·도 단위의 관광행정기구에서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課 단위에서 그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타 업무조직에 비해 상대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민주화의 여파로 관련 법제에 의한 개발의 허가는 형식상 각 시군에 맡겨져 있으나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와 개발재원의 한계로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정부패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광관련 업무를 局단위로 확대·개편해야 하며, 둘째로는 관광행정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대학에서 관광학을 전공한 학생을 특채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하나의 관광권에 행정구역이 다른 군·면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총괄하는 통합관광개발기구의 설립이 요망된다. 넷째로는 관광개발과정에서의 주민의사의 반영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청회등의 공식 절차뿐만 아니라 반상회, 간담회, 지역좌담회 등 비공식적인 의사집약기구를 활용토록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관광개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로부터의 지원을 확대하고, 외부 민간 자본의 지역자본과의 합작투자가 장려되도록 민간과 공공, 그리고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타 개발방식등 다양한 개발방식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6. 結 論

일반적으로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업화가 주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천연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지의 지역개발 수단은 관광산업의 육성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강릉·속초 지역은 제조업의 입지여건이 불리하므로 공업을 중심으로 한 지

역개발에는 적합하지 않아 그동안 개발이 소외되어 왔으나 지역기반사업으로서 관광사업은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크게 두 가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첫째는 지역산업연관 모형을 이용하여 관광관련 산업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를 측정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에 대한 주민의 의식과 행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었다.

우선 지역산업 연관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투입계수분석에서는 수산가공, 식음료, 인쇄출판 등이 지역산업과의 연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입계수로 보면 섬유·의복, 기타제조업 등에서 외부 의존도가 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둘째로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의 측면에서는 강릉권의 화학·석탄제품, 수산가공품, 식음료, 비금속광물 등이 높게 나타나고, 속초권에서는 인쇄·출판, 공공·행정 등 관광관련 산업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유발효과의 측면에서는 음식·숙박, 기타서비스, 도소매업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광관련 산업의 노동집약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입지계수에 의한 분석에서는 음식·숙박업, 수산가공업, 운수·보관업 등이 기반산업을 이루고 있으며, 속초의 경우가 강릉보다 관광관련 산업에의 의존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분석은 설문조사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주민소득증대 보다는 고용증대의 효과에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광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각종 공해유발, 산림훼손, 물가 및 지가의 상승 등 부정적인 견해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관광개발에의 관심과 참여의사는 높으나 외지자본에 대해서는 다소 경계하는 응답이 많으며, 지역외로의 소득누출이 적은 형태의 합동개발 방식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교육문화 및

지역산업과 천연조건을 활용하고 연계하는 개발형태를 바라고 있다.

이와같은 분석에 입각하여 관광개발의 개선방안으로서 관광수입의 누출방지를 위한 정책, 관광과 어업의 연계촉진, 연계관광「루트」의 개발, 관광행정조직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參考文獻

- 椶春植, 1988, “東海岸時代の 地域經濟 活性化方案,” 「嶺東研究」.
- 交通開發研究院, 1989. 12, 「首都圈內 遊休地の 觀光資源化 方案에 관한 研究」.
- 交通部, 1990. 3, 「觀光統計」.
- , 1982-89, 「觀光動向에 관한 年次 報告書」.
- 金炳文, 1981, “雪岳圈 觀光土產品 開發에 관한 調査研究,” 「觀光學」, 5, 서울: 韓國觀光學會.
- 金思憲, 1985, 「觀光經濟學」, 서울: 經營文化院.
- , 1983, “觀光開發과 地域經濟 便益分析: 觀光乘數概念의 適用을 통하여,” 「觀光學 研究」, 6, 서울: 韓國觀光學會.
- 金相勛, 1985, 「觀光學概論」, 서울: 集文堂.
- 尹大淳, 1992, 「觀光經營學原論」, 서울: 白山出版社.
- 李長春, 1981, 「觀光開發政策論」, 서울: 創文閣.
- 李允求, 1987, 「觀光振興法概論」, 서울: 探究堂.
- 丁碩宣, 1983, “觀光事業의 雇用效果에 관한 研究,” 「經營論集」, 關東大學 企業經營研究所, 第2-3輯.
- 韓國觀光協會, 1982, 「우리나라 觀光호텔의 等級別, 地域別 經營分析」.
- 韓大鉉, 1982, “東草地方의 地域開發方向: 洛山の 民泊形成過程을 事例로,” 「雪岳圈 地域 社會開發 研究協議會 發表論文」.
- 黃明燦, 1985, 「地域開發論」, 서울: 法文社.
- 三菱總合研究所, 1991, 大八木智一編, 「リゾート 事業戰略: 리조트づくりの ソフトウェア」, 東京: 清文社.
- 石井廣志, 1981. 11, “經濟效果の とらえ方,” 「月刊觀光」, 181, 日本觀光協會.
- Bukart, A. J. and S. Medlick, 1987, *Tourism: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Heinemann.
- Clawson, M. and J. Knetsch, 1966, *The Economic of Outdoor Recre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 Mathieson, Alister and Geoffrey Wall, 1982, *Tourism: Economic, Physical and Social*

Impacts, London: Longman.

Song, Byung-Nak and Choong-Young Ahn, 1981, *The Economic Impacts of Tourism in Korea*, Institute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ompson, Mark S., 1980, *Benefit-Cost Analysis for Program Evaluation*,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1978, *Guide to Practical Project Appraisal: Social Benefit-Cost Analysis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UN.

Williamson, J. G., “Regional inequalities and the process of national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13, pp. 3-45.

ABSTRACT

A Study on Impacts of Tourist Industry on Reg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Kangreung and Sokcho Area

Joo-Hyun Cho, Myong-Chan Hwang,
and Choon-Sik Kwon
Konkuk and Kwandong University

In spite of her abundant natural resources for tourist industry, Kangreung and Sokcho area became lagged in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national industrialization.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ctly measure the impacts of tourist industry on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regional input-output analysis, we found some critical facts: (1) Input coefficients are relatively high in those industries as fish products, food and drink products, and printing and publishing. (2) Input coefficients are high in fiber and apparel products, and other manufacturing. (3) Induced

production effects are high in chemical and coal products, fish products, food and drink products for Kangreung; and fish products, printing and publishing, and public administration for Sokcho. (4) As for the induced employment effect, food and lodging, other services, wholesale and retail show high coefficients. (5) As for the location quotients, food and lodging, fish products, transportation and warehousing are identified as basic industries.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we also found some important facts:

(1) Residents tend to evaluate employment effects higher than the

income effects from resort-related developments. (2) Pollution, forest demolition, general price increase, and traffic congestions are more serious than ever reported. (3)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resort development is high, but is discouraged by the lack of regional capital.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some future directions of tourist industry: (1) blocking the leakage of income produced in tourist industry, (2) connection between fishery and tourist industry, (3) development of tourist route, and (4) administrative reshuffling that helps joint development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